

KIA, 새출발 다짐하며 '연봉 협상' 마칩표 찍을까

신종길·양현종·김진우·안치홍 등 구단과 입장차

7·8일 워크숍 새해 첫 만남...평행선 협상 타결 기대

평행선을 달리는 KIA의 연봉협상이 급물살을 탈까?

KIA 타이거즈가 7·8일 현대서산 농장에서 '2014시즌 V11 달성 기원 선수단-프런트 워크숍'을 갖는다. 선동열 감독 및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그리고 허영택 단장 등 프런트는 워크숍을 통해 2014시즌 화합과 우승을 다짐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의 약동을 잊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

지만 결코 쉬운 만남도 기다리고 있다. 아직 연봉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를 넘기도록 계약을 하지 못한 주축 선수들이 있다.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협상 진행도 지지부진이다.

선수들은 "성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한 쪽에만 너무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섭섭하다. 팀 성적을 감안해서 인상폭과 삭감폭을 생각했지만 금액에 차이가 난다. 구단은 다른 팀 비슷한 포지션·경력의 선수

와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프로야구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축 선수 중에서 팀 유일의 3할 타자인 신종길, 마운드의 양축인 양현종·김진우, '꼬꼬마 키스톤' 안치홍·김선빈이 미계약자로 남아있다. 신종길·양현종·김진우는 인상폭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고, 안치홍·김선빈은 대폭 삭감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시즌 4500만원을 받았던 신종길은 104경기에 나와 첫 3할(0.310)과 함께 팀 유일의 3할 기록을 남겨 역대 연봉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인상률을 놓고 신종길의 마음이 편치 않다. 지역 연봉자인 만큼 상대적인 인상률도 감안해줘야 한다는 게 신종길의 생각이다.

화려한 전반기를 보냈던 양현종도 구단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 1억4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 올 시즌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마운드 자존심을 지킨 만큼 지난 삭감폭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인상을 해달라'는 입장.

지난 시즌 9년 만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재합류했던 김진우도 소폭 인상 대상자. 그러나 양축의 입장은 역시 평행선이다.

안치홍과 김선빈은 연봉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팀이 8위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연봉 총액이 삭감됐고, 안치홍은 처음으로 2군행에 오르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선빈은 3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부상에 신음하면서 88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대폭 삭감된 금액의 계약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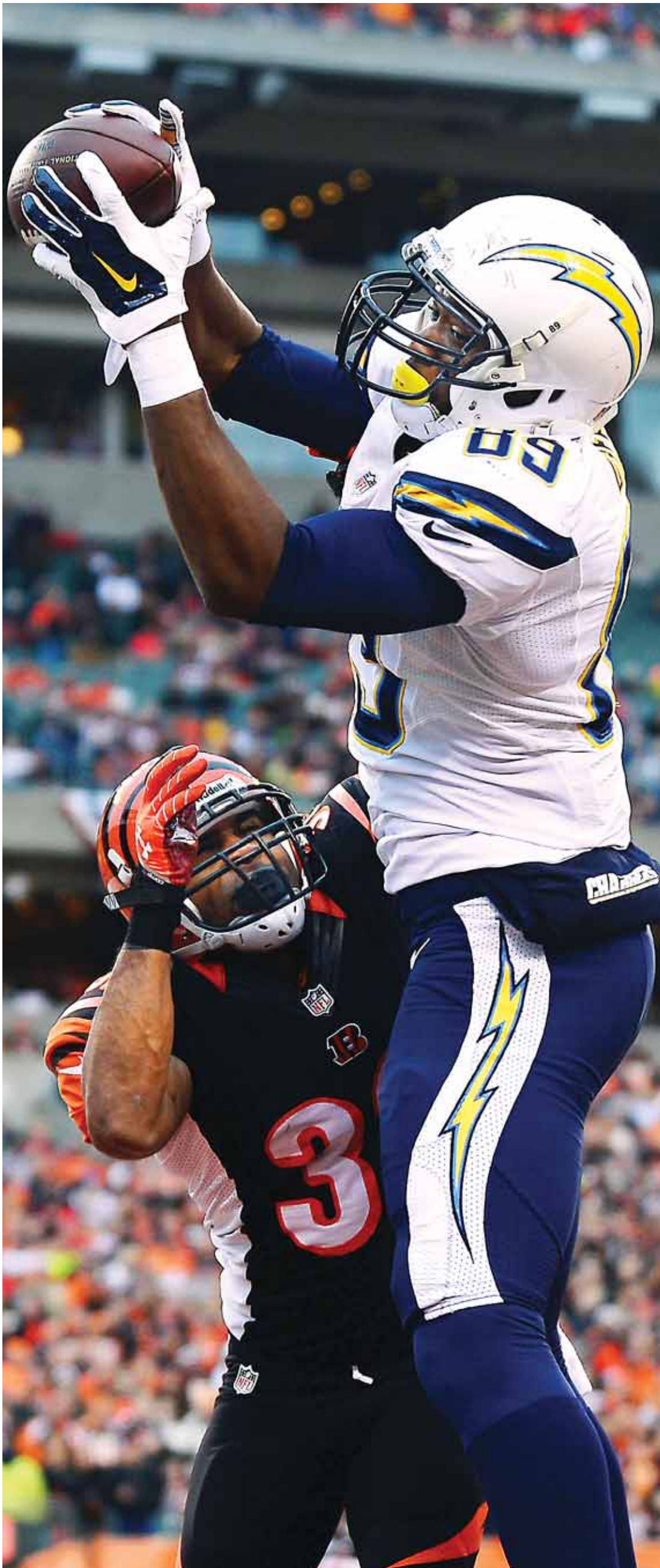
안치홍의 삭감률이 25%를 넘었고, 김선빈도 그 이상의 삭감률을 제시받은 상태다.

구단은 "선수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신생팀에까지 밀리면서 8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고, 새출발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KIA는 오는 15일 괄과 일본 오키나와에 2014시즌을 위한 캠프를 꾸리게 된다. 하지만 구단의 방침은 '미계약자는 캠프에 참가할 수 없다'이다. 출발부터 뼈가 걸릴 수 있는 위기다.

이번 워크숍은 새해 첫 만남의 자리다. 모처럼 얼굴을 맞대는 만큼 양측이 아쉬움을 털어내고 새출발을 다짐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침 없이 '터치 타운'

미국풋볼(NFL) 샌디에고 차저스의 라디리우스 그린(오른쪽)이 폴브라운 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 벅골스와의 경기에서 크리스 크로커를 피해 터치 다운 패스를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위촉



"150경기 목표...ML서 평창 알릴 것"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 150경기 이상을 뛰면 지금까지의 기록이 충분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이같이 올 시즌을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신시내티 레즈에서 20홈런·20도루·100볼넷·100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추신수는 텍사스와 7년간 1억 3000만 달러(약 1천371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은 뒤 귀국했다.

추신수는 "예전에는 항상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2011년 부상당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목표를 바꿨다"며 "150

경기 이상을 뛰려면 지금까지의 좋은 기록이 충분히 따라올 것이라 믿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다니 지난해 성적이 좋았다"며 "어차피 경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 타석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처럼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스포츠 스타로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게 된 추신수는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이번 직책을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처음 미국에 진출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팠던 부분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잘함으로써 외국 사람들이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기뻐"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유치한 것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미국에 간다면 텍사스 동료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하게 됐다고 꼭 알릴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추신수는 이날 오후에는 자신이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신의 이름을 건 자선재단의 사회공헌 협약식에도 참석했다.

추신수는 "모든 어린이가 야구를 쉽게 접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구장을 많이 만드는 등 한국과 미국에서 배워서 좋았던 것들을 어린이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향남, 도전은 계속된다

ML행 좌절·KIA 계약 불발...고양 원더스에 새등지

프로야구 최고령 최향남(43)이 독립구단 원더스에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고양 원더스는 6일 "프로야구 23년차 베테랑 투수인 최향남 선수가 고양 원더스 야구단에 입단했다"며 "경기에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12시즌 중반 친정 KIA에 돌아온 최향남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비리그 캠프 참가를 준비했지만 아쉽게 기회가 무산됐다. 이후 KIA에서도 선수단 구성에 난항을 표하면서 재계약이 불발, 개인 훈련을 해왔다.

김성근 감독의 조언에 따라 원더스에 합류하게 된 최향남은 "(KIA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어렵지만 새로운 곳에서 도전을 하게 됐다. 나이를 잊어버리겠다. 마지막 무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마지막을 위해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 올 시즌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팀을 떠나게 됐지만 (KIA)후배들이 잘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시즌을 보내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연봉도 많이 깎인 만큼 후배들이 간절할 마음으로 시즌을 보낼 것이다. 타선도 괜찮은 만큼 좋은 시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향남은 10일 일본 고치에서 시작하는 원더스의 전지훈련에 합류해 2014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훈 광주시야구협회장 차영화 코치 돕기 100만원

어려운 환경의 야구인을 돕기 위해 광주시야구협회가 두 팔을 걷어붙인다. 광주시야구협회 나훈(67·사진) 회장이 6일 전남대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차영화 KIA 코치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차 코치는 지난 10월 낙상사고로 목뼈가 골절돼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나 회장은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차 코치의 가족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많은 이들의 바램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는 협회 임원진들이 중심이 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야구협회는 이번 기탁을 시작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처해 있는 야구인 돕기 운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